

## 한국적 이미지의 축구유니폼 디자인개발에 관한 연구

김민자 · 박주희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강사\*

### Soccer Uniform Designs Representing Korean Image

Min-Ja Kim · Ju-Hee Park \*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  
Instructor, Graduate School of Art & Fusion Design, Kyunghee Univ.\*

(2002. 4. 18 투고)

####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develop soccer uniform designs for the enforcement of the identity of Korea. Throughout the development of the image of Taeguk and the pattern of tiger on the soccer uniform design, it was tried to show colors and symbolic elements representing Korean traditional themes.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cover : first, analysis of historic changes in Korean uniform design for the representative soccer players and uniform designs of the soccer players in other countries; second, analysis of the image of Taeguk and the pattern of tiger; third, analysis of the surveys of professional soccer players; and forth, uniform designs proposed and evaluation

To develop new uniform designs, Taeguk and tiger motives were adopted to express the identity of Korea by looking at the analysis of uniforms in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an addition, today's fashion trends of active sportswear were analyzed to get the new idea of design. With considering the surveys of the professional soccer players in Korea, the functional designs identifying the Korean image could have come out.

As a results of this research new designs of national soccer players' uniform including 4 designs for the motif of Taeguk, 4 designs for the motif of gae, 4 designs for colors of Taeguk, 4 designs for the motif of Tiger were developed, and 2 samples were made. Surveys for evaluation comparing new design & present uniform were progressed. An aesthetic and symbolic aspects of new design were better than present uniform regarding this survey.

---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개발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진행되었음

Key Words: Taegueuk image(태극이미지), colors of Taegueuk(태극색), Korean image(한국적 이미지), Symbolic design(상징적 디자인)

## I. 서론

국제사회에 있어서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은 미디어의 발달과 상업적 마케팅으로 인해 그 중요성과 가치가 날로 증진되고 있다. 특히 엘리트 체육으로 대표되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주요 국제적 경기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관심으로 인하여 참여국가의 승부, 경기의 내용 등 경기 직접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개최국의 시설, 문화, 선수들 유니폼의 기능과 디자인 등 경기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여 이들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에서 이념이나 종교, 역사의 갈등이 승부의 모티브역할을 해 왔으나, 동서체제의 붕괴이후 지구촌의 글로벌 화와 함께 경기장 내, 외에서의 승부는 이념이나 종교를 초월해 국가의 경제, 과학, 문화, 예술 등이 뒷받침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미디어 즉,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다.

흔히, 국제스포츠를 좌우하는 3대 기구로 IOC(국제 올림픽위원회), FIFA(국제축구연맹), IAAF(국제육상연맹)를 꼽으며 이 3대 기구가 운영하는 올림픽, 월드컵, 국제육상경기 역시 가장 권위가 있으며 상업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전세계인의 경기이다. 이 중 축구경기는 유일한 단일 종목의 경기로서 지구인이 가장 많이 시청하며 선호하는 경기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88 서울올림픽으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오랜 역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2002년에는 월드컵 공동개최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은 디자인과 색상 등에서 선수들이나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한국을 나타내는 독특한 휘장도 없는 상태에서 유니폼 자체에 한국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면 지구인의 축제인 월드

컵 개최국으로서 그 국가적 의미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축구경기에 있어서 선수들 유니폼의 기능과 디자인이 그 나라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매개체임을 인식하고,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 개발을 통하여 국가의 고유한 상징성과 스피드와 힘을 표현하는 디자인, 심리적으로도 경기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는 시각적 전술을 구가하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디자인의 주제를 국내의 대표선수 유니폼의 분석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와 88서울올림픽 등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로 가장 잘 알려진 호랑이 문양으로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구의 기원과 국내 및 해외 대표선수 유니폼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갖춘다.

둘째, 디자인의 주제인 태극기와 호랑이 문양이 지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셋째, 대학축구팀 및 프로축구팀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축구유니폼의 착용실태를 세밀한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조사한다.

넷째, 이론적 기반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태극문양, 패, 태극색, 호랑이 문양의 4가지 주제 아래 각 4점씩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 중 2점을 선정하여 작품제작을 해보는 사례연구를 한다.

다섯째, 개발된 작품 중 1점을 선정하여 기존의 국가대표선수 유니폼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 보다 객관적인 평가단계를 거친다.

## II. 축구와 축구유니폼

### 1. 축구의 기원

『蹴』, 발로 무엇인가 찬다는 행동은 인간의 본능적인 동작의 하나이기 때문에 축구와 유사한 행위, 또는 놀이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왔다. 동양에서는 기원전 전한 시대(기원전 2백년)에 축구와 유사한 경기의 기록이 있으며, 서양에서는 희랍시대의 에피스키로스, 로마 시대의 하르파스텀이 축구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경기로 기록된다.

현재의 축구와 같은 형태를 발달시킨 영국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미 12세기경에 풋볼이 존재했으며 17세기에는 일반에게 보편화되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대중 오락 수단으로서 존재했을 뿐이다. 이러한 오락수단이 규정을 갖춘 경기로 발전된 것은 1856년 캠브리지 룰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부 지방에서 축구클럽이 탄생되고 런던 근교에 산재한 클럽의 대표들이 모여 어느 때, 어디에서, 누구와도 함께 경기를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필요성에 공감하여 풋볼 협회(FA)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대식 축구의 탄생으로 인정되는 시작이다. 이러한 조직들이 영국의 각 지역(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에서 결성되었으며 이 지역 협회가 모여 국제 평의회를 결성하고 축구의 보급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리하여 1900년 초까지 유럽 각지에서 국가단위의 FA가 조직되었으며 1904년 6월 마침내 파리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결성되어 이후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기에 이른다.

단일종목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행사인 월드컵 축구대회는 1920년 올림픽 대회에서 FIFA가 독자적인 축구대회 개최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탄생하였다. 월드컵의 첫 대회는 1930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었으며, 1998년 프랑스의 16회 대회까지 치른 월드컵은 그 외형만 보더라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13개국만이 참가했던 우루과이 대회는 총 43만 4,500명이 운동장을 찾았지만 지난 미국 월드컵은 24개국이 참가, 본선 경기에서만 모

두 358만 7,538명이 경기장을 찾아 세계 최대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70년 멕시코 대회부터는 기술의 발달로 TV 위성중계가 가능해짐으로써 40억 전 세계인이 동시에 경기를 시청, 폭발적인 관심을 유도했다.

한국에 있어서 축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농주(弄珠)라는 희기(戲技)로 볼 수 있다. 한자풀이대로 하면 구슬을 갖고 논다는 표현이 될 것이나 일종의 구희(球戲)라 볼 수 있다면 이를 현재 축구의 기록상 기원이라 할 수 있겠다. 영국에서 시작된 규칙과 조직이 갖춰진 근대 형태의 축구가 도입된 것은 영국에서 운동규칙이 만들어진 20여 년 후인 1882년 고종 19년 인천 제물포에 영국군함이 들어오면서부터 일 것이다. 영국군이 두고 간 공을 갖고 그 흥내를 낸 것이 우리 나라에 축구가 들어온 연유이며 이때부터가 서구식 축구가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에 공식적으로 근대식 스포츠가 도입된 시기는 1895년 갑오경장 이후 서구에 문호를 개방한 때부터이다. 이 때부터 신학문이 들어오게 되고 외국인 교사들에 의해 각종 근대식 체육 종목이 소개되었다. 1902년에 배제학당에서 축구 반이 편성되었으며 이후 각급 학교 및 종교단체, 민간단체에 확산되고 경기 및 장소의 편이성으로 인해 대중적인 스포츠로 각광 받게 된다.

기록상 처음 열린 공개 축구경기는 우리 나라 근대 체육 활동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황성기독교 청년회와 대한 체육구락부의 정식 축구시합이었고 이후 각종 운동경기에서 주종을 이루는 경기가 될 정도로 많은 인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정식적인 규칙과 규정을 갖추고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한 경기가 1921년 조선체육회가 주최한 전조선 축구대회였고 이후 1933년 조선축구협회가 결성되어 한국축구의 조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2.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의 변천 및 디자인 분석

미적 가치와 기능성을 지니면서도 한국적 정체

성을 내포하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 축구가 규모와 조직을 갖추기 시작한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의 변천사를 살펴보았다.

1927년, 조선축구단의 모습 <그림 1>을 보면, 1 : 1 간격의 세로줄무늬 유니폼을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세로 선이 가슴부위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보아 유니폼을 매우 작게 입었음을 엿볼 수 있는데, 목선을 끈으로 처리하여 입고 벗기 편하게 하였다. 허리에 벨트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고무줄이 들어간 저지(jersey) 바지가 아닌 우븐(woven)으로 만들어진, 허릿단이 있는 바지가 아닌가 추정된다. 1935년, 경성축구단의 모습 <그림 2>에서는 소매와 몸판을 연결하는 V자 모양의 강렬한 컬러 블라킹(color blocking) 된 유니폼이 보이는데, 역시 목선이 끈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허리에는 아직 벨트가 채워져 있다. 1938년에도 끈으로 여밈 처리한 유니폼 디자인은 계속되지만, 허리부분의 주름으로 보아 이 시기 경부터 허리에 고무줄을 댄 바지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1947년, 서울 축구단은 상의의 끈으로 된 여밈이 사라진 칼라가 달린 브이 넥(collared v-neck) 유니폼을 입고 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 극동예선전에서 한국대표와 일본대표가 함께 기념 촬영한 모습에서는 단추 여밈 방식의 유니폼이 나타나는데, 사진 속의 일본선수와 한국선수의 유니폼을 비교해보면 같은 디자인에 상하의의 색상만 틀리고 왼쪽 가슴에 자국의 국기를 달았다. 이 시기부터 국기를 가슴에 부착시킨 유니폼이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1960년에는 현대의 유니폼에 한층 가까워진 실루엣의 단색 V-neck 유니폼이 보인다. 일반선수들은 왼쪽 가슴에, 골키퍼들은 가슴 중앙에 태극기를 달았다. 1972년의 대표팀은 목선을 흰색으로 배색 처리한 V-neck 유니폼을 입었으며, 역시 왼쪽 가슴에 태극기를 달았다. 1977년, 아르헨티나컵 대회의 대표팀은 목선과 소매 단을 흰색으로 배색 처리한 Round-neck의 유니폼을 입었다. 어깨와 소매선, 바지 옆선에 아디다스의 삼선 테이프를 둘렀으나 후원사의 로고는 아직 유니폼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역시 왼쪽 가슴에는 태극기를 달았다. 1986년,



<그림 1> 1927년, 조선축구단



<그림 2> 1935년, 경성축구단

아시아 경기대회의 한국축구대표팀은 목선과 소매 단을 흰색으로 배색 처리한 V-neck의 유니폼을 입었는데, 후원사인 워크엔드의 로고를 오른쪽 가슴에, 태극기를 왼쪽 가슴에 달았다. 후원사의 로고가 유니폼에 나타나기 시작한 첫 시기이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당시의 유니폼은 목선과 소매 단을 적, 백, 청의 색으로 배색 처리한 V-neck의 형태이고, 후원사인 라피도의 로고를 오른쪽 가슴에, 태극기를 왼쪽 가슴에 달았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당시의 유니폼은 사선방향으로 적, 백, 청이 어우러진 기하학 무늬가 프린트 되어있는 V-neck 디자인이다.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당시에는 적색 바탕에 Collared V-neck과 소매 단을 흑색으로 배색하고 가슴에 백색과 청색의 물결을 프린팅한 상의에 검은 색 하의를 입었다. 후원사인 나이키의 로고를 오른쪽 가슴에, 왼쪽 가슴에는 태극기를 달았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의 유니폼은 적색 바탕에 Collared V-neck과 소매 단을 청색으로 배색하고, 소매부분에 청색과 백색으로 파이핑 처리하여 운동 시 스피드 감을 준다. 칼라(collar)와 동일색인 청색의 바지에는 넓은 폭의 적색 블라킹과 뒤쪽으로 백색 파이핑이 있다. 적색

상의의 나이키 로고에는 청색 자수 실을, 청색하의의 로고에는 적색 자수 실을 사용하는 등 적, 청, 백의 태극색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국기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1920년대부터의 한국 축구유니폼의 변천을 역사 속에 나온 사진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초기의 축구유니폼은 적절한 소재의 부재로 디자인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점점 더 적합한 소재가 개발되면서 디자인도 세련되어 감을 볼 수 있다. 국가상징의 태극기는 1950년대의 유니폼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에 아디다스의 후원을 받은 유니폼이 후원사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은 채 나타났고, 1986년의 사진에서 처음으로 후원사인 위크엔드의 로고가 유니폼 오른쪽 가슴에 등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니폼의 오른쪽 가슴에는 항상 후원사의 로고가 부착되었다. 또한 유니폼의 색상은 태극기의 색인 적, 청, 백의 색이 유니폼 변천과 함께 다양하게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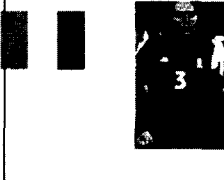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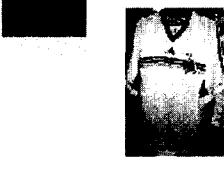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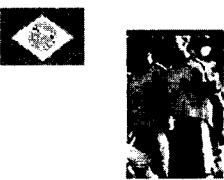
### 3. 해외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의 디자인 분석

각 나라 국가대표 선수팀의 유니폼에 나타난 국가의 이미지를 각 나라 국기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분석을 하였다. 각 나라의 유니폼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의 유니폼을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프랑스 축구대표선수 유니폼(adidas)은 청색 바탕에 백색과 적색의 콤비네이션으로 국기의 색을 그대로 반영한 디자인인데, 래글런 어깨의 테이프, 칼라 끝과 소매 끝의 고무단, 바지 옆선의 테이프에서도 아디다스의 삼선으로 삼색기를 표현, 국기의 상징성이 디자인과 색에서 강하게 보여진다. 또한 프랑스 축구협회를 상징하는 골드칼라의 엠블럼을 왼쪽가슴에 부착, 디테일이 많은 디자인에 포인트를 준다. 영국 축구대표선수 유니폼(umbro)은, 백색 바탕에 유니온 잭의 색상인 적색과 청색이 적절히 배치된 디자인이고, Side panel에서의 청, 백, 적색의 등분은 국기의 등분을 표현하고 있으며, 네 크라인의 청색과 적색의 비대칭적인 여밈은 유니

온 잭의 삼각을 연상시킨다. 유니폼 중심에 부착된 왕실을 뜻하는 사자 세 마리가 새겨진 방패모양의 엠블럼은 영국 축구협회의 엠블럼이기도 한데, 왕실의 권위가 느껴지는 이 엠블럼은 심플한 유니폼에 강한 상징을 부여한다. 독일 축구대표선수 유니폼(adidas)에는 백색 바탕에 국기의 삼색 콤비네이션이 네 크라인과 가슴에 사용되었고, 연방정부의 상징인 독수리가 들어간 엠블럼이 유니폼의 검은 선들과 조화를 이룬다. 스페인 축구대표선수 유니폼(adidas)은 적색바탕에 황색의 콤비네이션으로 국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국기 속의 문장을 가슴의 엠블럼으로 사용하였다. 아르헨티나 축구대표선수 유니폼(adidas)은, 국기 색의 3선이 몸판과 소매 그리고 Side panel에도 응용되어있다. 브라질 축구대표선수 유니폼(nike)의 상의는 황색 바탕에 녹색의 네 크라인과 어깨선, 소매 단 등으로 국기의 색을 표현하고 있으며, 국기 속 천체의 색인 청색과 흰색은 바지에서 표현되었다. 또한 왼쪽 가슴에는 브라질 축구협회 엠블럼인 CBF십자에 월드컵 4회 우승을 뜻하는 4개의 별이 그려진 엠블럼을 부착하였다. 네덜란드 축구대표선수 유니폼(nike)에는 예전 국기의 색 - 네덜란드의 국기는 처음에는 오렌지색과 청색이었으나, 해상에서의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색으로 바뀌었다. - 인 오렌지 바탕에 청색과 백색의 디테일을 가미하였다. 이탈리아 축구대표선수 유니폼(kappa) 국기의 색과는 무관한 청색의 심플한 유니폼으로 구성되었으며, 왼쪽 가슴에 부착된 국기의 삼색이 들어간 방패모양의 엠블럼에는 월드컵 3회 우승을 의미하는 3개의 별과 우승 년도가 적혀있다. 멕시코 축구대표선수 유니폼(gracis)은 녹색 바탕에 국가의 문장인 독수리 - 수도건설의 전설에 의하면 중앙의 섬에 선인장이 무성한 호숫가에 도시를 만들기로 했는데, 어느 날 호수에 독수리가 나타나 중앙 섬에 있는 선인장을 없애 주어. 여기에 건축한 도시가 지금의 멕시코 시티이다. - 가 프린팅 되어 있는 원단의 유니폼이다. 일본 축구대표선수 유니폼(adidas)은 국기와는 무관한 청색 바탕에 흰색이 콤비네이션된 상의와 흰색 바지인데, 왼쪽 가슴에는 신성시되어 오던 상상 속의 조류인 세 발 달린

<표 1> 각나라의 국가대표선수 유니폼 분석표

구분	국가	국기와 유니폼	유니폼 분석	구분	국가	국기와 유니폼	유니폼 분석
북미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기의 색 반영</li> <li>- 어깨선, 팔라골, 소매단, 바지앞선 등에서 아디다스의 삼선으로 삼색기를 표현</li> <li>- 축구협회 엠블럼</li> </ul>	북미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전의 국기색(주황과 청색)을 반영</li> </ul>
유럽	잉글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색바탕에 국기(유니온잭)의 색상 배치</li> <li>- 목둘레선의 비대칭적 여밈, 유니온잭의 삼각 표현</li> <li>- 왕실을 뜻하는 사자 방패모양의 엠블럼</li> </ul>	유럽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기의 색과는 무관한 청색의 심플한 유니폼</li> <li>- 국기의 삼색이 들어간 방패모양의 엠블럼에 월드컵 3회 우승의 별과 우승년도 표현</li> </ul>
남미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색바탕에 국기의 삼색을 목둘레, 어깨, 가슴에 표현</li> <li>- 연방정부의 상징인 독수리 엠블럼</li> </ul>	남미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기의 색인 녹색바탕에 국기의 문장인 독수리가 프린팅되어 있는 원단 사용</li> <li>- 독수리가 새겨진 축구협회 엠블럼 착용</li> </ul>
아시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색바탕에 황색의 폼비네이션으로 국기의 색 표현</li> <li>- 국기 속의 문장, 엠블럼으로 착용</li> </ul>	아시아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기의 색과는 무관한 청색바탕에 백색의 조화</li> <li>- 상삼 속의 조류인 세발까마귀가 새겨진 엠블럼 착용</li> </ul>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기색의 삼선을 유니폼 전체에 표현</li> </ul>	아프리카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기 속 태극의 적색바탕에 청색과 백색의 조화</li> <li>- 엠블럼 대신 태극기 부착</li> </ul>
오세아니아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색바탕에 녹색의 목둘레선과 어깨선, 소매단 등으로 국기의 색 표현 국기 속 천체의 색인 청색과 백색은 바지에서 표현</li> <li>- 축구협회 엠블럼에 월드컵 4회 우승의 별이 새겨져 있다.</li> </ul>				

까마귀가 새겨진 엠블럼으로 장식을 하였다. 이례적으로 오른쪽 소매에 국기를 달아 엠블럼과 국기를 동시에 사용한 몇 유니폼 중의 하나이다.

축구잡지와 한국축구협회 소장품들을 통해 본 해외 국가대표선수 유니폼에 대해 고찰해 본 결과, 유럽에서 시작된 전통의 스포츠인 만큼 각 나라의 유니폼에는 그 나라 축구의 전통을 나타내는 엠블럼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이는 유니폼의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의 국기의 의미와 색상을 연구, 유니폼과 연계시켜 본 결과 대부분의 유니폼에서 국기의 색상이나 국기 속의 문장 등을 사용하고 있어, 유니폼 자체가 국가를 상징, 유니폼 내에 별도로 국기를 부착시킨 나라는 많지 않으며 국기를 사용하는 몇몇 나라들은 엠블럼과 국기를 동시에 부착, 주로 왼쪽 가슴에는 엠블럼을 오른쪽 소매에는 국기를 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일본, 중국 등의 스폰서는 아디다스이며 한국, 브라질, 네덜란드를 비롯한 몇몇 나라의 후원을 나이키가 하고 있는데, 아디다스의 유니폼은 어떤 형태, 어떤 위치에도 아디다스 삼선이 들어가며 색상이나 절개선, 파이핑 등은 이용한 디자인 요소가 많은 반면 나이키의 유니폼은 심플한 디자인에 역동적 느낌의 나이키 로고로 임팩트를 주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은 각 나라의 국기와 국가대표선수유니폼의 연관성을 분석해 놓은 것이다.

### Ⅲ. 한국적 이미지의 태극기와 호랑이 문양의 상징성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발전 속에서 형성되어온 규범적 힘을 발휘하며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국적 이미지를,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와 한국의 전통 문양으로 자주 쓰여지는 호랑이 문양을

그 범주로 잡고자 하는데, 이는 우리 나라와 해외 국가대표 선수유니폼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론에서도 보여지듯이 유니폼에 국기를 다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유니폼 자체의 디자인이나 색상,

상징적인 문양 등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간접적인 상징 방법에 의한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기인한다.

#### 1. 태극기의 상징성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표상으로 대내외적으로 매우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 의식이나 미의식의 원천이며 우리민족을 형성케 한 정신사상의 표현으로, 진정한 의미의 나라의 얼굴이며 민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태극기의 흰색바탕은 백의 민족의 순결성과,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민족성을 표상하고, 태극은 “음” 과 “양” 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우주 만물이 생성하고 발전하는 대자연의 영원한 진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적색은 존귀와 양을, 청색은 희망과 음을 나타내며, 4괘는 천지일월 사시사방을 의미, 태극 속에서 음과 양이 질적 변화와 양적 성장의 선회운동을 거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길이 길이 발전하고자 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집약, 표상하고 있다. 태극기가 지닌 중요한 내용은 창조, 발전, 자유, 평등, 무궁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주의 근본인 태극이 음과 양 두 가지의 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듯이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창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표현한다. 셋째, 태극의 이론은 만물이 자연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 이는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의 국민성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 태극과 4괘가 전체적으로 음과 양이 균등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마주 보는 관계에 있어 우리의 평등 사상을 말해 준다. 다섯째, 태극 도형 내 청, 홍의 음양 곡선은 끝없는 계속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무궁하게 발전함을 표현한다.

태극문양은 우리역사 속에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분야로는 도자기, 건축, 의복 등의 선(線)과 더불어 유형, 무형 문화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음을 대표하는 땅(地)의 흙을 주제로 하고 양을 대표하는 불(火)을 통하여 비로소 만들어지는 우리의 도자기는 태극의 사상, 자연과의 일체성, 우주의 흐름과의 일체감이 잘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도자기의 외곽선은 태극의 선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우리의 전통건축물에서도 지극히 자유롭고 여유가 있는 현수선과 함께 적당한 긴장감을 연출하는 지붕의 처마선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선(線)의 유연성은 매우 완만한 선이 있는 반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선이 함께 존재하는 태극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태극의 사상, 조화와 화합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지붕(건축)의 무게를 시각적으로 감소시키기도 한다. 또하나 대표적인 태극선의 응용으로는 우리의 한복, 버선, 비녀, 고무신 등의 의복에서 보여지는 선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태극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선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거역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융통성과 우주의 진리, 태극의 사상까지도 수용하여 그 맥을 같이한다.

태극선의 다양한 응용과 더불어 종묘의 주춧돌, 덕수궁 덕홍전, 창덕궁 인정전, 종묘 돌계단 등 여러 유형문화와 강강수월래, 태극선을 그리는 상모 돌리기, 맞서기보다 화합을 위한 씨름, 승무, 태극 형태를 그리며 단합을 보이는 고싸움, 옷놀이, 태



<그림 3> 태극문양의 응용사례

권 등의 무형문화들에서도 태극문양의 응용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3>은 백제시대의 기와, 채색꽃문, 백제부여 규암면의 무늬전돌, 조선시대의 소반, 화성 수원성 성벽의 태극곡선, 도산서원 전교당의 대문, 송례문 판문, 감은사지, 민간에서 널리 쓰인 부채등의 유형문화에서 나타난 태극문양의 응용사례이다.

## 2. 호랑이 문양의 상징성

한국의 문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공예 유물을 비롯하여 모든 조형물에 나타난다. 문양의 종류로는 크게 동물형, 식물형, 기하학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국적 조형물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문양으로는 봉황, 용, 거북(현무), 두루미(학), 호랑이, 기린, 물고기 등이 있으며, 식물문양으로는 연꽃, 모란, 매화, 인동당초, 보상화, 국화, 포도 등을, 기하학문양으로는 구름, 번개, 원 창호, 태극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세 가지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문양으로 충효 또는 삼강오륜의 교훈적 의미나 길상적인 뜻을 지닌 글자를 통하여 바라는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로 병풍으로 제작되었던 문자도가 있다.

한국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국가대표축구선수 유니폼의 개발을 위하여 동물형, 식물형, 기하학적, 기타의 한국적 문양들 중 한국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축구라는 역동적인 스포츠에 가장 걸맞은 문양으로 본 연구에서는 호랑이의 문양을 주로 사용한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론고찰에서는 여러 종류의 문양들 중 호랑이 문양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우리 민족은 동물들을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고와 정신을 지닌 생명체로 생각해 동물들의 자연적인 행동이나 습성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로까지 승격시켜왔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함께 변하기도 하는 이러한 동물의 상징의미는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신과 문화를 발견하게 한다. 호랑이 또한 민화나 설화 속에서 여러 의미로 보여지는데, 이를 살펴보면 우리 조상이 호랑이에



대해 어떤 상징을 부여했는지를 알 수 있다.

1) 민화 속의 호랑이

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까치와 그 밑에서 이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호랑이의 그림으로 유형화된 <그림 4>의 작호도에서와 같이 우리의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사납고 험상궂은 모습이 아니라 점잖게 입을 다물고 있거나 혹은 빙그레 웃음을 머금고 있거나 때로는 바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다정스럽고 친숙함을 느끼게 하



<그림 4>  
작호도

는데, 이는 우리 민족의 어질고 온화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호랑이를 소재로 한 민화 중에는 또한 수호적인 역할을 했던 사신도의 한 변형들도 많다. 좌청룡, 우백호로 왼편은 용이 막아주고 바른편은 호랑이가 막아주는 벽사용 그림들이 그것인데, 이 그림 속의 호랑이는 대개 포효하는 모습이거나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악귀를 향해 정면으로 도전하여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호랑이가 벽사로 사용된 예는 이밖에도 호랑이 발톱노리개나 시집가는 신부의 꽃가마에 덮는 호피 문양의 가마덮개, 상여나 무덤가에 세웠던 호상 같은 것들이 있다.

2) 설화 속의 호랑이

호랑이는 환웅이라는 이주민이 꿈을 숭배하는 종족과 정략결혼을 맺었다는 의미의 단군신화에서부터 등장하여, 당시 호랑이를 숭배하는 종족도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삼국지』의 위지 동이전에서 삼한시대에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는 제의가 행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도교의 유입으로 산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좌정되면서 호랑이는 사자나 심부름꾼으로 전략하게 되지만 지금까지도 상황제나 산신제에서 호랑이를 마을의 신으로 모시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설화나 전설 속의 호랑이

는 신의 사자로서 효를 실천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영물로 등장하여 유교의 실천덕목을 일반 민중들에게 권장하기도하고 또 은혜 베푼 자에게 보답할 줄 아는 신분 높은 자의 덕목의 상징으로, 토끼나 여우 등에게 어리석게 희롱 당하는 무능력하고 한심한 위정자의 상징으로도 등장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의 궁핍과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호랑이가 영물이라는 믿음은 호랑이가 둔갑에 능하다는 믿음으로까지 확대되어, 호랑이가 사람으로 둔갑하는 『삼국유사』의 감현감호설화나, 사람이 호랑이로 둔갑하는 황팔도설화 등에 호랑이를 등장시켜, 상징적인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 이야기 속에서 둔갑에 능한 호랑이는 순애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불교를 포교하기도 하고, 조선을 상징하는 인물이 호랑이로 둔갑하여 조선을 구해내기도 한다.

3) 잡귀 쫓는 호랑이

우리 조상들은 인월(寅月)이라 하는 호랑이 달, 정월에 호랑이 그림을 대문에 붙이면 그 해의 잡귀들이 근접하지 않는다고 믿어, 문배속에 호랑이를 그려 잡귀를 쫓고 집안이 태평하고 흥하기를 기원하였다. 삼재에 걸린 사람의 부적에도 머리가 셋 달린 매와 함께 호랑이가 사용되었는데, 호랑이는 매와 달리 야행성동물이며 잡귀를 능히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믿음으로 삼재부의 중심동물로 그려졌다. 마을의 공동체신앙인 산신제나 서낭제에서도 호랑이는 산신으로 신격화되었다. 이는 산에 사는 맹수 중에서 가장 용맹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에 대한 공포와 경외를 숭배와 믿음으로 승화시켜, 호랑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IV. 축구유니폼의 착용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상징성, 심미성, 기능성을 모두 겸비한 국가대표선수유니폼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현재 활동중인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자료를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유니폼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국가대표선수유니폼이라는 연구의 목적상 국가대표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연구기간 중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 등 여러 가지 사정상 대학축구팀과 프로축구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조사자가 일대일로 응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항에 답하도록 하여 현상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택하였으며, 우선 대학의 아마추어 선수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분석, 보다 실질적인 접근에 대한 답을 얻어내고 이를 토대로 수정된 문항으로 프로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2000년 1월 10일 인천대학교 축구팀 2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설문조사는 2000년 3월 7일 안양 LG 축구팀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한 선수들은 평균 연령 21.4세, 평균키 178.0cm, 축구시작연령 (주3회 이상 정기적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한 연령) 평균 12.2세로 평균 약 9년 정도의 축구경력을 지녔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문항은 먼저 선수들이 착용하는 현행 유니폼에 관한 전반적인 선호도나 불만요소들을 기능성 위주로 파악하고, 축구선수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유니폼에 대하여 심미

성 위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1차 설문지의 문항은 현행 축구복 관련 문항/착용감 / 세부형태 / 소재 / 색채 / 기타 질문들로 구성되었으며, 전 문항은 주관식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인터뷰를 통해 답변의 의도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였다. 1차 설문지의 답변을 분석한 후 필요하지 않은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판단, 보다 실질적인 문항들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의 종합적인 결론은 <표 2>와 같다

## V. 축구유니폼의 디자인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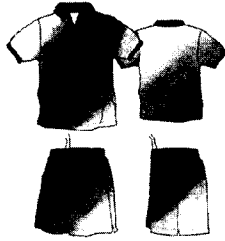
### 1. 디자인 해설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유니폼 개발을 위하여, 그 주제를 태극문양, 패, 태극색, 태극색, 호랑이 문양의 네가지로 나누고, 각 주제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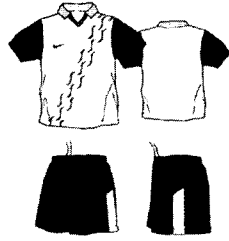
첫 번째 주제인 태극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에서는 축구라는 역동적인 스포츠에 걸맞게 움직임을 극대화시키는 선과 프린팅 기법을 활용하였다.<그림 5>-<그림 8>

<표 2> 축구유니폼의 착용실태 분석-프로선수의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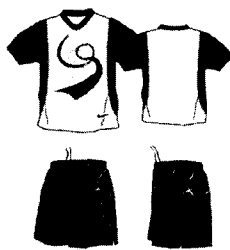
설문 내용		설문 결과
축 구 복	바지의 통과 길이	바지 통은 현행 유니폼이 적당, 바지길이는 긴 것을 선호(무릎 바로 위 정도) 폴키퍼-칠부바지 등 패션성 있는 유니폼을 원함
	바지허리 고정방식	바지허리의 허리끈은 대부분 안쪽을 원하나, 밖으로 나오게 하자는 의견, 부분고무줄 방식 의견 등
세 부 디 자 인	바지의 옆트임	옆트임새가 있어야 활동도 편리하고 멋스럽다라는 의견
	속 팬티	허리부분이 둔하고 팬티가 몸에 끼기도 하지만 신체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
	칼라와 목둘레	칼라가 달린 V-넥, 라운드-넥 순으로 선호
	소매	소매 끝 고무 단의 유무는 반반의 의견, 래글런보다는 셋인 소매를 선호 소매 아랫부분에 통기성 소재를 덧댄 디자인을 선호
소 재	부드럽고 흡습성 좋은 소재를 선호, 무겁고 거친 소재에 거부감	
색 상	단순하면서도 화려한 색, 세련된 색감 선호, 청색을 가장 선호	
기 타	브랜드는 나이키를 가장 선호, 외국 유니폼처럼 엠블럼 요구	



<그림 5>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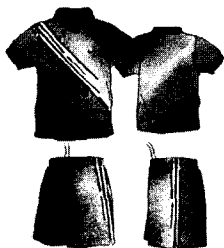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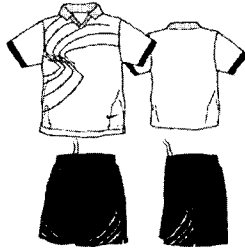


<그림 8>

두 번째 주제인 패를 활용한 디자인에서는 패의 형태가 유니폼 전체를 가로지르거나 분할하도록 하여 큼직큼직하고 굵직한 느낌의 역동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주력하였다.<그림 9>-<그림 12>



<그림 9>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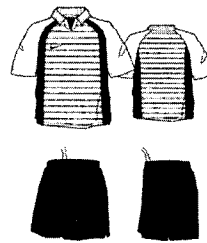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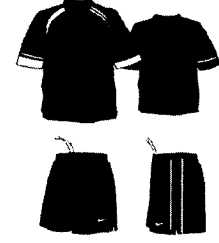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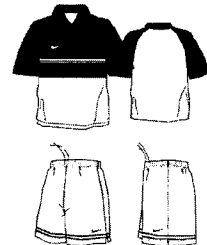
세 번째 주제에서는 대부분의 외국국가대표 선수복처럼 국기의 직접적인 활용보다는 국기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국기의 색으로 전달하는 디자인들을 모아보았다. 자칫 디자인이 혼해 보일 수 있는 이 주제에서는 세련되고 독특한 디자인 선을 만들기 위해, 래글런이나 기모노 등의 선을 이용한 재미있는 디자인 선을 많이 응용하였으며, 비대칭 등의 디테일로 변화를 주는 디자인도 전개하였다.<그림 13>-<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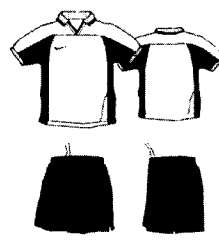
<그림 13>



<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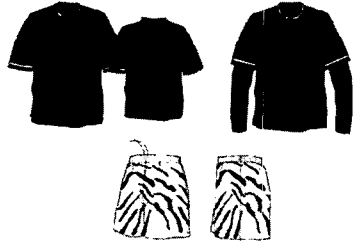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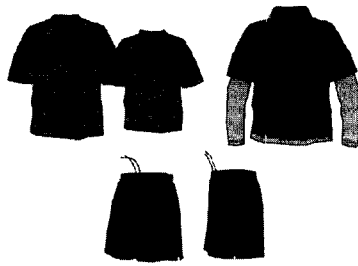


<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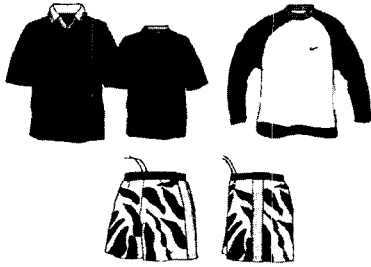
네 번째 주제는 한국적 전통을 보여주는 여러 문양 중 가장 자주 한국적 문양으로 거론되어지는 호랑이 문양을 응용한 디자인들을 전개해 보았다. 호랑이는 88서울올림픽의 캐릭터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코믹하고 친숙한 느낌의 풍자적인 호랑이가 아닌, 위엄이 있으면서도 능률한 자세를 가진 호랑이를 모티프로 디자인하였다. 황색, 흑/백, 적/청의 이중색 등 색상을 달리한 호랑이 문으로 각각 변형된 디자인을 전개하였으며, 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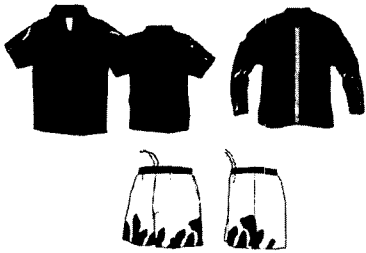
<그림 17>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

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서의 호랑이를 유니폼에 단순화시켜 그려 넣음으로써 강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디자인 등을 개발하였다. 이 주제에서는 골키퍼의 유니폼도 함께 개발하였는데, 같은 디자인에 색상만 달리하는 현행 골키퍼 복에서 탈피, 같은 디자인 디테일을 사용하면서도 좀더 역동

적인 느낌을 주는 골키퍼 유니폼을 개발하였다.<그림 17>-<그림 20>

축구유니폼에는 고유의 엠블럼과 후원사 로고의 적절한 배치 또한 유니폼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었으나, 현재 우리 나라의 유니폼에서는 엠블럼을 사용하지도 않으며, 엠블럼 개발은 본 논문의 논제가 아니므로 현재 우리 나라 국가대표 선수 유니폼의 후원사인 나이키의 로고만을 각각의 디자인에 배치시켰다.

디자인 작업 시 이론적 기반 이외에도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Promostyl Sportswear, Carlin Sportswear, Advanced Activewear Forecast 등 트렌드 전문서적을 참고하였으며, 인천대학교와 안양LG팀의 설문조사에서도 출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 2. 작품 해설

네 가지 주제에 따른 디자인 개발과 함께 태극기의 응용과 호랑이 문양의 응용 디자인을 각 1점씩 실물제작 하였다. 실물은 디자인의 특성상 프린트나 소재 패치, 칼라 블라킹 등의 기법을 요하는 문제로 인하여 샘플염색을 한 소재를 사용하였으므로 소재의 질이 기성의 소재에 비하여 많이 떨어지고 봉제상태도 소재의 특성상 깨끗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 등의 제약점을 노출시켰다.



<그림 21> 패를 활용한 디자인



<그림 22> 호랑이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그림 21>은 <그림 9>를 실물 제작한 것으로,

태극의 적색과 청색을 사선으로 분할하여 그라데이션 프린팅한 원단으로 상의를, 청색만 프린팅된 원단으로 하의를 제작한 후, 변형된 패션을 상의의 대각선과 하의의 옆선에 실크프린팅하였다. <그림 22>는 <그림 17>을 실물 제작한 것으로, 단순화시킨 호랑이가 프린팅된 원단으로 상의를 만들고, 흑백의 호문이 프린팅된 원단으로 하의를 제작하였는데, 흑색의 소매는 짧은 소매와 긴소매를 이중으로 처리하여 레이어드 룩의 골키퍼복이 되도록 하였고, 백색의 선을 넣은 고무 단으로 네크라인과 커프스를 장식하였다.

### 3. 작품의 평가

개발된 디자인 견본에 대해 Lamb & Kalle이 제시한 상징성, 심미성, 기능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적인 이미지를 잘 상징하는지, 미적 완성도는 있는지, 경기 시 신체활동이 용이한지 등의 디자인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도록 견본이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01년 7월 13일에서 16일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유니폼을 입는 당사자의 입장으로 평균나이 22세의 서울대학교 체육학과 남자학생 12명, 유니폼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입장으로 평균나이 25세의 서울대학교 비체육학과 학생 19명(여자 10명, 남자 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축구라는 전국민적인 스포츠의 유니폼은 그것을 착용하는 선수 당사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관람자 또한 중요한 평가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설문 방법은 현행 국가대표선수 유니폼과 제작된 새로운 유니폼 중 본 논문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패를 활용한 디자인 견본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평가기준인 심미성, 상징성,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를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5단계의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Grant의 알파-베타 모델에 의한 평가법에 의해 평가되었다. Grant의 알파-베타 모델에 의한 평가법은 디자인 기준에 대한 목표의 중요도를 알파값으로, 해결방안의 디자인 기준에 대한 충

족도를 베타값(전혀 아니다=1, 아니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으로 하고, 각각의 디자인 기준에 대한 알파값과 베타값을 곱한 결과의 합을 알파값의 합으로 나누어 그 해결방안의 전체적 점수를 구하여 이 점수에 근거하여 최선안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개발의 주요목적인 상징성 기준의 알파값을 0.4로, 나머지 심미성과 기능성 기준은 각각 0.3씩으로 설정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상징성은 한국적 이미지가 느껴지는지(상징성 1)와 국제무대에서도 한국적 정체성이 표현되는지(상징성 2)의 두 가지 경우를 각각 조사하여, 우리 자신이 느끼는 한국적 이미지와 외국인이 느끼는 한국적 이미지에 차이를 두었다.

<표 3>은 각 디자인 기준들에 대한 알파 / 베타값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으로 심미성 기준에 대한 결과로 새로운 유니폼이 기존의 유니폼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상징성 기준에 대한 결과도 새로운 유니폼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성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니폼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같은 알파값을 지닌 심미성 기준과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기존이나 새로운 유니폼 모두 심미성보다 기능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상징성 기준1과 상징성 기준2 문항의 결과에서는 새로운 유니폼이 기존의 유니폼보다 한국적 이미지는 더 우수하나 국제무대에서는 기존의 유니폼보다 덜 우수하다는 평가로 국제무대에서는 인지에 일정 기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3>은 또한 착용자와 관람자의 견해 차이를 보여 주는데, 평가의 결과로 체육과 학생들이 비체육과 학생들보다 기존유니폼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한축구협회의 게시판에 올라오는 축구선수들과 축구 팬들과의 현 유니폼의 태극기 / 엠블럼 부착에 대한 이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축구선수들에게는 국가대표선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포부이기에 국가대표선수 유니폼으로 오랜 시간 노출되어 온 태극기가 부착된 기존 유니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에 기인된 것이다. 비체육과 학생들의 평가 결과는 체육과 학생들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심미성 기준에 대한 평가에

서는 두드러지게 기존 유니폼에 대해 반감을 보여 주고 있지만, 기능성 기준에서는 새로운 유니폼보다 기존의 유니폼을 더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사진에서 개발된 디자인 견본이 나이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현행 유니폼에 비해 소재나 봉제의 완성도가 뒤떨어지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적절한 소재의 부재로 디자인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점점 더 적합한 소재가 개발되면서 디자인도 세련되어 감을 볼 수 있으며, 국가상징의 태극기는 1950년대의 유니폼에 처음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태극기의 색인 적, 청, 백이 유니폼 변천과 함께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70년대 중반에 아디다스의 후원을 받은 유니

<표 3> Grant의 알파-베타 모델에 의한 평가 결과

		중요도	대상	체육과 (n=12)	비체육과 (n=19)	전체 (n=31)
심미성		0.3	기존 유니폼	0.93	0.55	0.70
			새로운 유니폼	0.83	0.82	0.82
상징성	1	0.4	기존 유니폼	1.23	1.09	1.15
			새로운 유니폼	1.13	1.20	1.17
	2	0.4	기존 유니폼	1.13	1.16	1.15
			새로운 유니폼	0.97	1.18	1.10
기능성		0.3	기존 유니폼	0.98	0.92	0.94
			새로운 유니폼	0.80	0.87	0.84

## VI. 결 론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축구경기에 있어서 선수들 유니폼의 기능과 디자인이 그 나라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매개체임을 인식하고, 한국적 이미지의 국가대표축구선수 유니폼 개발을 통하여 국가의 고유한 상징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첫째, 축구의 기원과 국내 및 해외 대표선수 유니폼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둘째, 한국적 이미지의 유니폼 개발을 위하여 디자인의 주제를 태극이미지와 한국적 이미지를 주는 문양 중 호랑이 문양으로 정하고, 각 주제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셋째로는 대학축구팀 및 프로축구팀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넷째, 이론적 기반과 설문조사를 통한 프로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 개발과 작품제작을 해보는 사례연구를 하고 평가의 단계를 거쳤다.

연구의 결과로는 1920년대부터의 한국 축구 유니폼의 변천을 고찰해 본 결과, 초기의 축구유니폼은

폼이 후원사 로고를 부착하지 않은 채 나타났고, 1986년에 처음으로 후원사인 워크엔드의 로고가 유니폼 오른쪽 가슴에 등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니폼의 오른쪽 가슴에는 항상 후원사의 로고가 부착된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었다.

해외 국가대표선수 유니폼을 고찰해 본 결과, 유럽에서 시작된 전통의 스포츠인 만큼 각 나라의 유니폼에는 그 나라 축구의 전통을 나타내는 엠블럼이 부착되어 있어, 디자인 완성도 및 선수들의 사기와 자부심을 높여준다. 각 나라의 국기의 의미와 색상을 연구, 유니폼과 연계시켜 본 결과, 대부분의 유니폼에서 국기의 색상이나 국기 속의 문장 등을 사용하고 있어, 유니폼 자체가 국가를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유니폼 내에 별도로 국기를 부착시킨 나라는 많지 않다. 또한 국기를 사용하는 몇몇 나라들 중 우리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유니폼은 엠블럼과 국기를 동시에 부착, 주로 왼쪽 가슴에는 엠블럼을 오른쪽 소매에는 국기를 달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일본, 중국 등의 스폰서는 아디다스이며 한국, 브라질, 네덜란드를 비롯한 몇몇 나라의 후원을 나이키가 하고 있다. 아디다스의 유니

품에는 다양한 형태의 아디다스 삼선이 들어가고, 색상이나 절개선, 파이핑 등의 디자인 요소가 많은 반면, 나이키의 유니폼은 심플한 디자인에 역동적 느낌의 로고로 임팩트를 준다.

인천대학교 축구팀 25명과 안양LG팀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축구복 세부디자인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통해, 선수들은 칼라가 달린 V-넥과 라운드-넥을 가장 선호하고, 래글런보다는 셋인 소매를, 단순하면서도 화려한 색, 세련된 색감, 청색을 가장 선호하며, 외국유니폼의 엠블럼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태극문양, 패, 태극색, 호랑이 문양이라는 네 가지 주제 아래 각 4점씩의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그 중 2점을 선정하여 작품제작을 하였다. 또한, 체육인 12명과 비체육인 19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유니폼과 제작된 유니폼 중의 하나에 대해 심미성, 상징성, 기능성 관련 문항으로 평가를 거쳐 심미성과 상징성 두 항목에 대해 기존의 유니폼보다 개발된 유니폼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 참고 문헌

- 김중대(2001),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다른세상
- 임영주(1998), 『한국전통문양 제 3 권 상징적 동물문양』, 예원
- 신영훈 외 11명(1978), 『한국의 문양』 서울: 공간사
- 안상수(1987), 『한국전통 꽃무늬』 서울: 안 그래픽스
- 진상택(1987), 『한국인의 생활문양』 서울: 선진문화사
- 오근재(1987), 『한국문양의 전개, 와전편』 서울: 미진사
- 알프레드 바알(1999), 『축구의 역사』, 지현 역, 서울: 시공사
- 『한국축구백년사』(1986), 대한축구협회
-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제1차 시안-(1991), 국립현대미술관
- 월간 디자인(2000), 260호, 디자인하우스
- 베스트 일레븐(2000), 2000년 1월호, 월간축구사
- 베스트 일레븐(2000), 2000년 5월호, 월간축구사
- 베스트 일레븐(2000), 2000년 12월호, 월간축구사
- 베스트 일레븐 (2001), 2001년 2월호, 월간축구사
- 권현정(1983), “우리나라 올림픽 유니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신미(2000), “프로선수를 위한 스포츠웨어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John Berger(1972), 『Ways of seeing』,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 Aldersey-Williams(1992), 『Nationalism and Globalism in Design』, Rizzoli
- Keir Radnedge(1997), 『the Ultimate Encyclopedia of Soccer』, Carlton
- Bernaed Cathelat, Mike Burke, Robert Ebguy(1998), 『Social Trends Fashion Trends』, Premiere Vision Laboratory Hugh
- Grant, D. P.(1976), : How to use an alpha-beta model for decision making with multiple objectives”, *Design methods and Journal of DMG*, 10(1)
- Lamb, J. M. & Kallal, M. J.(1992), “ A Conceptual Framework for Apparel Design”, *Clothing and Research Journal*, 10(2)
- Advanced Activewear Forecast(2000), 2001 Summer, EDM Publication
- Carlin Sportwear(2001), 2002 Fall/Winter, Carlin
- Promostyl Sportwear(2001), 2002 Fall / Winter, Promostyl
- <http://www.kidp.or.kr/design/symbol/flag/index.html>
- <http://www.designdb.com/db20/design/symbol/flag>
- <http://www.chonhyang.com>
- <http://myhome.netsgo.com/songpr>
- <http://www.worldcup.co.kr>
- <http://greenfield.fortunecity.com>